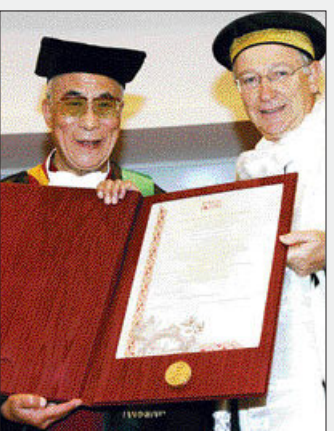


‘골프계 큰 별’ 아널드 파머 공식 은퇴

세계 골프의 큰 별인 아널드 파머(77)가 마침내 필드를 떠났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파머는 13일(이하 현지시간) 시니어 대회인 썬 피어스 투어 ‘스플 비즈니스’ 1라운드를 시작할 무렵 4번홀에서 볼 2개를 연달아 물에 빠뜨리자 포기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골프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달라이 라마, 생물학 명예박사 됐다

로마 제3대학 수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로마 제3대학에서 14일(이하 현지시간) 생물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뇌와 정신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달라이 라마의 “정신과 삶 연구소”가 생물학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 명예박사를 수여하게 됐다.



성지교회 ‘빛고를 코스모스 축제’ 개최

광천동 ‘성지교회’가 주최하는 ‘빛고를 코스모스 축제’가 14일 광주시 서구 광암교 천변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광주에 조인

“광주영화제, 특성을 갖춰라”

영화인과 영화 마니아를 위한 잔치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화려하게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PIFF)에는 다채로운 행사와 좋은 영화를 즐기기를 위한 사담들로 가득했다.

발행하는 잡지 ‘버라이어티’가 올해부터 부산에서도 데일리리를 발행하고, 영화제 권위를 알수 있다는 ‘월드 프리미어’(세계에서 최초로 개봉하는 것)도 64편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해서도 “PIFF를 모방하기 보다는 각 영화제가 가지는 개성을 특성화 하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영화제는 해외 수출·홍보 마케팅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인권의 도시’라는 특색을 살려 인권 영화제로 가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파트너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경제학부)가 14일 오후5시 서울 광장동 W호텔 비스 타홀에서 열린 사이(본명 박재상·29)와 유혜연(29) 씨의 결혼식에서 ‘듀엣의 성공비법’을 전수했다.



구례농기센터 정연권씨 ‘대산농촌문화상’ 수상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정연권(49·사진) 씨가 야생화 연구로 농가소득을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 15회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했다.

‘2006년 광고인 한마당’ 행사 성료

‘2006년 광고인(光高人) 한마당’ 행사가 15일 광주고 대운동장에서 동문과 가족, 초청 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스티븐 호킹 박사, 영화 출연

영국의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64)가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법정스님 “한미 FTA 협상 끝까지 막아내야”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이 시대 농업을 말살하려는 한미 FTA 협상을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인사 ◆영암군 ◇5급(승진교육) ▲도시계획담당 박철수 ▲투자지원담당 최대호 ◇6급(전보) ▲서무담당 문정영 ▲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정계공원 가족실업모 특별분양... (62)521-1100

장 김한남 나주·강진·해남동문화 초청 월례회=17일(화) 오후 6시30분... (062) 222-4938, 222-4918